

현 중3 수능 EBS 연계율 50% 하향 추진

<70%→50%>

6차 대입정책포럼서 논의 문제풀이 위주 고교수업 지적 전남지역 등 불이익 우려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EBS 연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이 방안이 내달 교육부에 의해 확정되면, 사교육 환경과 가정 경제 형편이 열악한 전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별 적성고사와 학생부종합전형 교사추천서를 폐지하고 대학별 학종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한국방송통신대 서울지역대학에서 6차 대입정책 포럼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포럼은 앞서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범위에서 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발제를 맡은 강기수 동아대 교수는 "EBS 연계율을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EBS 교재 외) 다른 문제집을 이용한 문제풀이 수업이 우려돼 수능-EBS 연계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실익이 적다"면서 "고교수업 변화와 연계율 축소가 동시에 적용되면 고교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EBS 연계정책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2005학년도 수능 때 도입됐으며 2011학년도부터 연계율이 70%로 고정됐다. EBS 교재 속 지문과 주제·소재가 비슷한 지문을 다른 교재에서 가져오는 간접연계는 2016학년도부터 시작됐다.

이 정책은 사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수험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다.

신형식 순천북성고 진학부장은 "상대적으로 수능이 쉬우면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수능-EBS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에서 낮춰지면, 전남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계율이 높을 경우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EBS 교재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절반 수준으로 낮춰지면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게 더 많아진다. 가정 환경, 사교육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면 전남 학생들에게 이로운 이유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고등학교 수업을 'EBS 교재 암기시간'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포럼 토론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고교 1학년생 학부모 유미선씨는 "EBS 연계율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EBS 교재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어 사교육비 경감 등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호 계명대 교수는 "국가가 주도하는 수능을 특정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것은 한시 조처"라며 "연계율 하향과 간접연계로 전환뿐 아니라 수능에서 EBS 교재라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성고사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에 대해 강 교수는 폐지를 제안했다. 다만 그는 적성고사 폐지 시 수시모집 학생부교과·논술전형과 정시모집 수능중심전형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

봤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12개 학교가 4636명을 적성고사를 치러 뽑는다.

통상 적성고사는 대학이 정한 2~3개 교과 객관식 시험을 푸는 방식이다.

사교육을 유발하고 수험생에게 부담을 줘 교육부는 2015년부터 적성고사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대학들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입학전형 방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적성고사를 대체할 전형 방식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강 교수는 구술고사(면접)에 대해선 '학 교생활기록부 내용 확인 차원 외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 폐지'와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를 지양하되 불가피하면 선행학습교육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라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자소서 개선방안으로는 '개조식 사실 기록 중심 500~800자'로 분량을 줄이고,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탈락시키거나 입학 취소하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포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위기의 조선대’ 교직원도 개혁 앞장

노조 ‘행정혁신위원회’ 운영

조선대 교직원들이 '행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자체개혁에 나섰다. 대학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원들 스스로 뜻을 모은 결과다. 조선대는 최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우수대학(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해 2단계 평가를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최근 2018학년도 제4차 대의원에서 직원들의 안일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무너진 행정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세대를 아우르는 행정혁신위원회에서는 나쁜 관행, 낭비적인 행태 등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는 적폐에 대해 반성적 공감을 통해 일 하고자 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더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연구 결과물을 도출해 대학 집행부에 권고할 것"이라며 "직원들은 '우리부터 달라지면 조선대학교가 달라진다'는 혁신 캠페인을 현장에서 지속적

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원노조는 총장 직선제 등 다양한 대학내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직원들간 불협화음을 일으켜온 것으로 평가되는 총장 직선제의 폐단과 한계 등도 짚어볼 계획이다.

앞서 조선대는 학사·행정 조직 규모 30% 감축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가 교수총회와 교무위원회회의를 거쳐 확정된 5개 구조개혁 대원칙은 ▲학문 및 행정단위 구조조정 ▲모집단위의 계열화 및 광역화 ▲기초학문단위 보호 ▲단과대 및 계열별 책임경영제 시행 ▲병원·치과병원 임상 교원 인건비 80% 부담(재정적자 해소 방안) 등이다.

교육부 등은 조선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2단계 평가 서류를 토대로 이달말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2단계 평가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대학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16년 연속 중기부 최우수 평가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6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창업기업의 든든한 멘토이자 성공의 조력자가 되고 있다.

16일 동강대에 따르면 창업보육(BI)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60여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창업보육센터 운영·경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동강대 BI센터는 2016년까지 실시된 운영평가에서 14년 연속 S등급에 이어 지난해부터 바뀐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최고의 창업보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동

강대는 자평했다.

지난 1999년 12월 개소한 동강대 BI센터는 창업보육, BI보육역량 강화, BI건립 지원, 창업 맞춤형 지원, 산학협력력기술포럼,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지원 등 입주기업과 창업가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창업 초기 기업들의 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폐업을 최소화해 힘쓰고 있다.

또 2015년 첫 시행된 '대학생창업아카데미 사업'을 지역에서 3년 연속 수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영식 남부대 교수, 중국총영사관서 웃음철학 강연

남부대학교 김영식 교수(무도경호학과·웃음인성교육연구센터장·사진)는 지난 13일 주광주중국총영사관에서 '웃음으로 소통(笑通)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 교수는 자신의 웃음철학을 바탕으로 중국의 공자사상과 한국 문화 속 웃음관련 여러 사례들을 풀어 강의를 진행했다. 한국의 판소리 속의 공자와 해학에 대한 설명에서는 김 교수가 판소리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

또 김 교수는 웃음소리 '하하하'는 만

국의 공통언어라며 직장 생활 속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웃음 요가 동작을 선보였다.

김영식 교수는 학생들에게 웃음치료와 인성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외국인교민들을 대상으로 웃음특강 및 범국민 웃음생명운동 등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원대학교가 16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E-러닝 스마트 창의·인성 프로그램 제작발표 및 시연회'를 열었다.

송원대, 스마트 교육 산학협력 콘텐츠 개발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16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E-러닝 스마트 창의·인성 프로그램 제작 발표 및 시연회(이하 'E-러닝 시연회')를 열었다. 송원대 평생교육원 인성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창의인성교육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송원대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송원대 평생교육원 내에 인성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인성교육지

도자 양성기관 지정을 목표로 해 다양한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에 접목해 왔다.

이번에 선보인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산학협력MOU를 체결한 ㈜옴즈정보기술과 협력한 결과물이다.

이는 유아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실험을 목표로 E-러닝 스마트 콘텐츠 및 창의인성교육 콘텐츠다.

▲E-러닝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동화와 종이접기를 활용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종이접기 워크북 제작 ▲ 유아교육 전공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 활용 특강 등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송원대는 차별화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타 대학과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인성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의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졸업생의 차별화된 현장적용 능력 향상과 콘텐츠의 광활한 보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수익, 정부의 방과 후 교실 확대에 따른 방과 후 교사의 효과적인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 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 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 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